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련포남새온실농장 건설예정지를 현지에서 료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이 일떠서게 될 함경남도 함주군 련포지구 건설예정지를 현지에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2019년 4월 몸소 현지를 답사하시며 함경북도 경성군 증평지구에 건설한 온실농장보다 더 방대한 규모의 현대적인 온실농장을 련포지구에 일떠세움으로써 함경남도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게 할 구상을 펼치시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련포지구 대규모 남새온실농장건설과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설계사업을 지도해오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는

2022년도 주요국가건설정책과업들 중 최우선적인 과업으로 련포남새온실농장 건설을 내세우고 올해 당창건기념일까지 완공할것을 결정, 포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지에서 먼저 련포남새온실농장건설총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을 청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번에 련포지구에 건설하게 되는 온실농장은 몇년전 함경북도 경성군 증평지구에 건설한 온실농장보다 그 규모에 있어서나 공사량에 있어서 더 방대한 대상이라고 하시면서 련포지구에 100정보온실과 농장살림집 지구가 일떠서게 되면 이 일대가 완전히 천지개벽되고 함흥시를 비롯한 함남도인민

들의 식생활에 많은 보탬을 주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온실농장건설에서 이미 많은 경험을 축적한 인민군 부대들에 또다시 새로운 대규모온실농장 건설을 맡기기로 결심하시였다 하시면서 해당 부대 장병들은 당의 구상과 정책의 철저한 집행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들로 담게 숭고한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여 우리 당의 숙원사업을 하루빨리 관철하기 위한 총성의 총돌격전을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번에 건설하려는 온실농장설계안에 이미 건설한 증평남새온실농장의 우단점들을 모두

참고하고 반영하여 과학기술적측면에서나 경영상측면에서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100정보면적에 해당하는 850여개 온실들의 현대화수준을 철저히 높일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해안가의 지대적 특성에 맞게 온실농장변두리에 방풍림 조성을 선행시키고 농장살림집구획형성과 살림집형태의 다양성도 특색있게 구현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온실농장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각 부문별로 분과들을 내오는 문제, 설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고 건설자재보장과 온실설비

제작을 선행하며 시공지도와 건설감독 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방풍림조성과 원림녹화사업을 책임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 등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이와 함께 온실농장을 다음해부터 운영할수 있게 기술자, 종업원선발교육을 따라세우며 남새종자보장과 농기계, 영농물자확보를 동시에 내밀어 하루빨리 인민들의 식생활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농장, 당의 온실농장건설정책의 본보기, 표준이 되게 만점짜리로 일떠세울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중요무기체계를 생산하고있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중요무기체계를 생산하고있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수공장의 혁명사적교양실과 여러 생산현장들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책임일군들로부터 공장이 최근에 이룩한 기술 및 생산공정 현대화정형과 현형생산실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결정집행을 위해 중요무기생산에서 집단적혁신과 양상을 일으켜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무력의 현대화와 나라의 국방발전전략실현에서 공장이 맡고있는 위치와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을 우리 국방

공업의 현대성을 상징하는 본보기공장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과 군검수원들이 당의 혁명위업을 강위력한 첨단무장으로 용위해나갈 일념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군수생산으로 당과 혁명을 보위해온 자랑스러운 우리 국방공업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군수정책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총돌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야 한다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본사기자

한평생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3)

판문점이 전하는 송고한 통일이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난 세기 1970년대에 조국통일은 참말로 민족의 랑심이 가리키는 애국위업이라고 하시며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가장 공명정대한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셨다.

돌이켜보면 1970년대는 내외분열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으로 하여 하나의 조선이나, 《두개 조선》이나 하는 두 로선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날카롭게 벌어졌던 시기였다.

이 복잡하고 엄혹한 정세가 극단으로 치달던 주체 61(1972)년 7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한몸의 위험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판문점을 찾으셨다.

판문점, 지도에서 보면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 겨레가 겪고있는 민족분열의 고통과 반통일세력에 대한 참을수 없는 증오가 응집되어 있다. 특히 이곳은 언제 불이 오가고 철과 철이 맞부딪칠지 모르는 세계 최대

의 열점지역이다. 바로 이 위험천만한 곳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으셨던 것이다.

당시 판문점에서는 북남적십자재비회담이 진행되고있었다. 판문각에서 회담준비를 하고 있는 공화국의 대표단성원들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회담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조국통일3대 원칙이 구현된 7.4북남공동성명의 요구에 맞게 회담을 이끌어가기 위한 방향과 방법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었다. 또한 판문점로에서 멀리 남쪽하늘가를 바라보시며 조국을 빨리 통일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어느 하루도 심려하지 않은 날이 없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68(1979)년 10월 어느날에는 조선의 통일문제는 결국 하나의 조선인가 아니면 두개의 조선인가 하는 문제를 귀찮다고 하시면서 나는 언제나 하나의 조선을 생각하고있다고, 두개의 조선을 순간도 생각해보면 안되고, 조선을 하나로 합쳐야 살고 돌로 갈라지면 살

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조선은 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이라고, 《조선은 하나다!》, 이것은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었다. 그리시면서 나는 어린시절 38°선이란 말을 들었을 때부터 분열의 장벽을 일시적인것으로 생각했지 결코 영원한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통일위업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여도 온 민족이 예

국의 마음으로 단합하면 능히 내외분열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짓부시고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었다.

이렇듯 나라의 통일을 위해 그리도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이시기에 언젠가 동해안일대를 현지도하시면서는 우리는 언제나 통일을 생각하며 일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아침에 깨어나도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하고 저녁에 잠들 때에도 통일을 위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신것이다.

진정 위대한 김정일장군은 탁월한 사상과 명도로 조국통일위업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든든한 토대를 닦으신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외국의 저명한 녀류작가의 관복

주제69(1980)년 4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양을 방문한 도이쉴란드의 저명한 녀류작가 루이저 린저를 만나주시고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루이저 린저가 올리는 축원의 인사를 받으시고나서 그의 두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몸은 건강하냐, 가족들은 다 잘 있는가,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고 일일이 물으시면서 아직까지 이곳 기거에 적응되지 않았겠는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그와 담화를 하시면서 우리 나라도 귀국과 같이 분렬되어있다고, 민족의 분열은 그 나라 인민에게 있어서 최대의 민족적비극이라고 하시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조선로동

당과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방안에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우리는 북과 남의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루이저 린저는 남북분열방안이 조선을 통일할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후 루이저 린저는 자기의 글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내놓으신 남북분열방안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천재나 위인도 발기할수 없는, 오로지 위대한 인간만이, 열렬한 애국가만이, 민족의 어버이만이, 정치의 영결만이, 평화의 천사만이 내놓을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이며 평화에 호적되고 애국적방안이라고 하시었다.

또 그런 일에 대해 관심하지 않았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해방 직후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뜻을 높이 받들어 통일애국의 길에 한몸바친 려운형선생의 서거일을 기억해주시고 나라일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그의 추모회를 열도록 세심히 보살피주셨것이었다.

본사기자

반세기전에 세상을 떠났어도

주제86(1997)년 6월 어느날이 기록되어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려운형선생 서거 50돐이 되는 계기에 모란봉극장에서 추모회를 조직하는것이 좋겠다고 교시하시었다.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어느 일군도 려운형선생의 서거일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했고

또 그런 일에 대해 관심하지 않았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해방 직후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뜻을 높이 받들어 통일애국의 길에 한몸바친 려운형선생의 서거일을 기억해주시고 나라일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그의 추모회를 열도록 세심히 보살피주셨것이었다.

본사기자

풍랑바람을 날바다우에 펼쳐진 사랑의 구조작전

1980년 10월 26일은 세계 해운력사에 《죽음의 날》로 기록되어있다.

그날 태평양서부수역을 휩쓴 무시무시한 태풍으로 하여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1만2천여명의 선박들이 수십척이나 침몰되어 태풍중심권을 벗어난 지점인 남조선 근해에서만도 740여척의 배들이 향방없이 종적을 감추었으며 수많은 인명손실을 보았던것이다.

바로 그날 밤 일본을 떠나 조국으로 달려오던 《삼지연》호가 원산동쪽 150mile 해상에서 그 태풍의 중심선에 들게 되었다. 배에는 조국을 방문하는 수백여명의 재일동포청년들이 타고있었다.

배의 상태를 알리라는 조국의 무전을 받은 《삼지연》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편을 보내어왔다.

《3층객실 정면유리 4개 파손, 객실침수, 배 전진 못함, 위험!》

그야말로 절망적인 무전문이었다.

이에 대한 통보를 받은 조국의 일군들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일군들은 이 사실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보고드리었다.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화로 조난당한 배에 사람은 몇명 있다고 배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고 물으시고 배를 구원하기 위한 대책을 곧 취하겠다고 하시었다. 그리시면서 중요한 것은 배자체에서 풍랑을 이겨내기 위한 투쟁을 잘하는것이라고, 배에 연락하여 침몰되지 않도록 견지하기 위한 투쟁을 잘하게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그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장군님께서 다시 전화를 걸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조난당한 《삼지연》호의 형편을 보고받으시고 특혜운부(당시)에 2만2천리 큰 배가 있는데 그 배를 동원하여 구원하도록 하라고, 인민군대에서 비행기도 동원하고 직승기도 파견하여 감시도 하면서 형편을 알아보는것이 좋겠다고 교시하신 내용을 알려주시었다.

그러시면서 배가 나간다고 하여도 파도에 시간당 5mile 밖에 전진할수 없기때문에 배가 나가기 전에 침몰할수 있다고, 중요한것은 배의 침몰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투쟁을 잘하는것이라고, 배가 서있는데는 곤란하니까 가능하면 우리쪽으로 전진시켜야 한다고, 배의 지휘도 침착하

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심신을 가지고 침몰을 방지하기 위한 투쟁을 잘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리시었다.

그 시각으로부터 얼마후 천지를 뒤엎을듯한 광풍이 휘몰아치는 동해상공에는 인민군비행기들이 날아왔고 2만2천리대형잠배 《두만강》호가 수많은 의사들과 구명기재들을 싣고 해군함선들과 함께 산골은 파도를 헤치며 태풍수역으로 달려나갔다.

대규모의 구조작전이 시작 된것이었다.

그러니 죽음이 경각에 달하였던 조난선에서 이 감격의 소식을 받아안고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비행기와 대형잠배, 함선들을 맞이하게 된 동포청년들의 심정이 어떠하였겠는가.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만세를 목청껏 웨치며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머금고 배안의 물을 퍼내는 결사전에 떨쳐나섰다.

밤은 깊었으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의 건강이 넘어져서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고 간절히 말씀올리는 일군들에게 이국땅에서 조국을 찾아오는 동무들이 도중에서 폭풍을 만나 고통하는데 어떻게 위겼는까. 그들이 조국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뜰수 없다고 하시며

서 구조전투를 계속 지휘하시었다.

《삼지연》호가 위대한 장군님의 지시대로 풍랑을 이겨내면서 인내성있게 조국으로 한치한치 다가오고있던 때 배를 어느 항구에 대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거리로 보아 입항하기 편리한 김책부두에는 이미 술한 배들이 정박해있었고 그렇다고 원산부두로 가려면 아직도 많은 거리를 항행해야 하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책부두에 있는 큰 배들을 다른쪽으로 빼도록 하고 《삼지연》호를 부두에 대도록 하여야 한다고, 배운전을 잘하여 김책부두에 사고없이 들이대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이리시었다.

이리하여 27일 새벽 4시, 온밤 엄혹한 자연의 횡포를 용감히 이겨내고 끝끝내 조국해안에 들이선 《삼지연》호는 고동소리를 높이 울리며 김책항으로 들어왔다.

《삼지연》호의 무사입항, 실로 그것은 뜨거운 동포애, 민족애를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안아낼수 있는 기적였고 사랑의 전설이었다.

본사기자

민족의 전통과 풍습을 길이 빛내여주시며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설명철을 맞게 된다. 5개년계획수행을 위하여 너무나 애국의 성실한 맘을 울리며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는 속대 설명철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기쁨은 자못 크고 온 나라는 민족적색채가 짙은 명절분위기로 흥성하고있다.

이러한 이채로운 설맞이풍경은 공화국에서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우수한 문화전통이 그대로 이어지고있다는것을 가슴뿌듯이 실감케 한다.

우리 민족의 문화전통이 면면히 이어지고 시대와 력사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하고있는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핌과 현명한 령도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주체78(1989)년 1월 어느날이었다.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옛날부터 우리 조선사람들은 음력설을 쇠는것을 전통으로 하겠다고 하시며 음력설을 크게 쇠도록 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또한 그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철을 잘 쇠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면서 설을 쇠어도 우리 식으로 설에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민족전통에는 하나의 피줄과 언어, 문화를 가지고 살아온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넋이 숨배어있고 숭고한 민족애와 조국을 지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의 고유한 문화전통과 풍습을 적극 살려나가는것

서도 나라난다고 하시며 우리의 민족옷인 조선옷은 보기도 좋고 입기도 편리하다고, 특히 녀성들이 입는 치마저고리는 세상에 자랑할만하다고, 민족성을 고수하는 문제를 강하게 들고나가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해마다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모으며 진행되는 전국조선옷전시회에도 민족성을 지키고 더욱 빛내어

맛게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앞으로 민족적향취가 절제 풍기는 민족음악과 민족무용, 민족미술을 발전시키고 태권도, 씨름을 비롯한 민족체육을 장려하며 유희오락을 하여도 윗놀이, 팽이치기와 같은 민속놀이를 많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또한 민족음식과 조선옷을 장려하고 교상한 우리 말과 인사법을 잘 살리며 고려의학과 민족적전통의학술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는 문제 등 민족전통계승과 관련한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

민족이 창조한 우수한 전통을 잃어버려나간다고 하시려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민족전통에는 우리 민족의 유구성과 우수성, 교상한 정신세계와 고유한 생활태도가 반영되어있다고 하시면서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고 대를 이어 전해오는 가치있는 창조물들과 미풍양속을 귀중히 여기고 시대적요구에

세인의 다함없는 칭송과 찬탄의 목소리

인민에게 하시는 인사

예로부터 인사는 아래사람이 웃사람에게 먼저 하는것이 관례로 되어왔다. 그러나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신다.

새해의 첫아침마다 다심하신 음성으로, 뜨거운 정이 넘치는 친필로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나라 가정들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란다시며 정깊은 새해인사를 먼저 보내신다.

어제 그뿐이었던가.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기념하는 열병식장에서 그이께서는 온 나라 인민들이 무병무탈해 주셔서 고맙다고 눈물젖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령도자의 뜨거운 정과 사랑이 넘치는 인사를 받은 조선인민을 두고 세인은 부러움과 찬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령도자는 인민우에 존재하는 사람

이지만 조선의 령도자께서는 인민에게 자신을 두시고 인민을 자신의 하늘로 여기신다. 새해의 아침에 온 나라 가정에만복이 깃들기를 녀원하는 김정은령도자의 축복의 인사는 사실상 새해에도 온 나라 가정에 만복을 꾀워주시려는 그이의 헌신의 맹약이다.》

《김정은령도자가 인민에게 바라는것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인민이 무병무탈하게 살았으면 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쁨과 락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것이다. 인민이 안녕하고 행복하면 고맙다고 인사하는 이런 령도자, 그분은 령도자라기보다 인민들의 친아버지이고 친어머니이다.》



로병들에게 보내신 인사

공화국에서 전승절에 진행되는 전국로병대회들도 가슴뜨거운 화폭들을 전하여주고 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회장과 기념촬영장에 나오시어 언제나 로병들에게 깊이 허리굽혀 인사를 하곤 하신다.

불굴의 전승세대에게 보내시는 그이의 인사를 받으며 백발의 늙은이들은 어련에마냥 그이품에 안겨들고 그이의 옷자락에 매달리며 눈시울을 적신다.

본사기자 리경월

남조선에서 위인칭송도서 발행

최근 남조선에서 도서 《김정은시대 연구》(제1권)가 출판된 소식을 남조선 언론 《민플러스》가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도서 《김정은시대 연구》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대한 혁명령도 10년사를 소개한 책으로서 크게 4개 부분 즉 제1권 1, 2부와 제2권 3, 4부로 구성되어있으며 제2권은 앞으로 출판할 계획이라고 한다.

도서의 서론에서는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00돐을 맞는 2012년에 공화국에서 김정은시대가 개막된것은 력사의 필연적결과라고 하면서 지난 10년간 공화국에서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서술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남조선 같은은 3일도 버

리기 어려웠던 이 10년동안 공화국은 자력갱생전략으로 《상징적해》를 이루었다고 하면서 공화국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력사적의미가 무엇인가를 해명하여 민족의 평화와 화해, 협력과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한 해답을 주기 위해 이 도서를 집필하였다는데 대해 밝히었다고 한다.

이어 제1권 《김정은시대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에서는 김정은시대가 어떤 시대적, 력사적조건과 경제적으로 시작하였는가에 대해 서술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1부에서는 1994년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의 극복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으며 제2부에

서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의 최고지도자로 추대되시는 과정과 그이의 철학과 사상, 정치로선과 정책들, 각 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들이 서술되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제2부에서 김정은시대 10년 동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바뀌는 공화국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자세히 소개하지 못하는 자신의 능력이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제2권(3부와 4부)에는 력사적인 당대회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본사기자

서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의 최고지도자로 추대되시는 과정과 그이의 철학과 사상, 정치로선과 정책들, 각 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들이 서술되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제2부에서 김정은시대 10년 동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바뀌는 공화국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자세히 소개하지 못하는 자신의 능력이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제2권(3부와 4부)에는 력사적인 당대회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본사기자



민족대단결에로 부르는 불멸의 지침

2월 4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일심대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시라》를 발표하신 3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이 로작은 온 겨레가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 고귀한 지침이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우리는 조국통일도 남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우리 나라를 분열시킨것도 외세이고 우리 나라의 통일을 악랄하게 가로막고 있는것도 다름아닌 침략적인 외세이다. 외세에 의존하여 그 무엇을 해결하려 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 남의 힘이 아니라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뜻깊은 가르치심은 민족의 대단결이야말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새겨주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우리 민족은 그가 북에 있던 남에 있던 해외에 있던 누구나 다 고려민족으로서의 넋을 지니고있기때문에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은 우리 민족이 하나로 단결할수 있는 사상정신적 기초를 밝혀주고있다.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존엄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민족적 특질이다. 지금 우리 민족은 누구나 다 민족의 분열을 가슴아파하고있으며 나라가 하루 빨리 통일되기를 바라고있다. 이것은 그가 북에 있던 남에 있던 해외에 있던 심장속에는 고려민족의 피가 흐르고있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고려민족의 넋을 지니고있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한다는것을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새겨주고있다.

누구나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있던 남에 있던 해외에 있던 누구나 다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하며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여기에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와 계급, 계층의 리해관계를 뛰어넘어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 통일위업에 특색있는 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숭고한 뜻이 맥박치고있다. 민족의 각이한 계급, 계층의 요구와 리해관계는 서로 다르지만 오늘 우리 민족앞에 1차적으로 나서는 민족적과업은 조국통일이다.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속시키는 원칙에서 온 민족이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때 조국통일은 이룩되게 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여.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온갖 난관과 장애를 물리치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자. 본사기자 박철남



조국통일문제의 본질

백두에서 하나까지 한지맥으로 이어진 이 땅이 북과 남으로 갈라진지 장장 70여년 세월! 우리 겨레는 이 기간 세월 어느 하루도 통일된 강산에서 다같이 함께 살 그날을 그려보지 않은적이 없었다. 통일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 민족의 최대소원이다. 겨레가 간절히 바라는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려면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을 잘 아는것이 중요하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전국적범위에서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우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해방직후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하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은 북과 남으로 갈라지지 않았을것이고 년대와 년대, 세기와 세기를 이어가며 민족분열의 고통을 겪지 않았을것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주된 세력은 다름아닌 외세이다. 하기에 조국통일문제는 곧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로 된다. 그리고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민족이 자주성을 잃고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민족의 권리와 리익, 민족성과 민족의 존엄이 깃밟히고 민족적천대와 멸시, 망국노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이것은 민족수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겨레가 뼈아프게 체험한것이다. 공화국에서는 민족자주의 정책이 철저히 구현되어 민족의 존엄과 리익이 확고히 보장되고 민족의 위용과 기상이 만방에 떨쳐지고있다. 그러나 외세가 강점한 남조선에서는 어떠한가. 민족의 존엄과 자주적권리가 외세에 의해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이러한 외세에 의존하여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것

은 예속의 울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것이 나 다름없는 어리석은것이다. 조국통일문제는 또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북과 남은 70여년간의 오랜 기간에 걸쳐 불신과 대결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남조선을 강점한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책동의 결과이다. 오늘도 남조선에서는 공화국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이 로골적으로 벌어지고있고 동족을 자극하고 때없이 걸고드는 불순한 책동들이 계속 감행되고있다. 민족분열을 종식시키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민족내부에 존재하는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적으로 단합하여야 한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고 해도 서로를 역사로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 우리 민족의 민족적공동성보다 더 클수 없다. 북과 남이 민족적공동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고 다같이 조국통일을 지향해나선다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결코 한민족 내부에서 서로 지배하고 예속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나라의 절반방인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이 계속되는한, 우리 민족의 영구분열을 피하는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이 계속되는한 조국통일투쟁의 앞길에는 앞으로 많은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것이다. 온 겨레는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과감히 투쟁해나가야 한다. 본사기자 유금주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조국통일 3대 헌장의 정립

1990년대중엽에 들어와 나라의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겨레의 지향은 더욱 높아갔으며 이러한 환경은 조국통일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개해나갈것을 요구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인 주제 85(1996)년 11월 24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판문점에 대한 역사적인 현시시찰을 진행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판문점에 진립된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비 앞에서 오래도록 정음을 읊기 못하시며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위업에 기울여오신 수많은 낮과 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었다. 그러시면서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로선과 방침, 방안과 제안들을 몸소 구상하시고 작성하시였으며 그것을 해마다 보고와 연설, 담화를 통하여 천명하시였는데

그 수는 수백권에 달할것이라고. 북과 남이 합의하고 민족앞에 엄숙히 선언한 조국통일3대헌칙도,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도,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도 다 우리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가장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침이라고.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헌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국통일의 3대기둥, 3대헌장이 라고 말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 52돐에 즈음하여 주제 86(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시라》에서 수령님의 조국통일령도업적을 총괄하시면서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

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해주시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헌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원리와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 3대헌장이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된 조국통일의 구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로정이다. 또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 3대헌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의 3대헌장으로 정립해주시으로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조국통일을 가장 빨리 실현할수 있는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안재홍선생은 늦게나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무엇인가 보람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선생은 1956년 7월 재북인사들과 함께 재북평화통일추진협의회(통협)를 결성하였다. 선생은 재북평화통일추진협의회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어 자기의 총책을 성실히 수행하여나갔다. 이 나날 선생은 또다시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만나려는 열망을 지니였다. 주제46(1957)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선생을 친히 만나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선생의 건강에 대해 따듯이 물어주시며 나라안팎의 중요한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보게 된 안재홍 선생은 하나의 자연경치를 두고도 분별의 비극을 통감하시는 그이를 우리처럼

《위대하시고 또 위대하신분》, 《동서고금에 걸줄이 없는 위대한 수령》이라고 칭송하면서 어학자로서 더 훌륭한 표현을 찾지 못하는것을 안타까와하였다. 선생은 재북평화통일추진협의회 최고위원으로서 조국통일을 위한 일이라면 밤늦도록 펜을 달리고 때로는 마이크앞에서 서서 남녘형제들과 동료들을 목청껏 찾으며 그들의 의로운 투쟁을 고무해 주였다. 재북평화통일추진협의회 최고위원으로서 남조선의 통일애국세력들의 투쟁에 커다란 힘이 되고 용기가 되

어버이수령님의 필생의 뜻을 받들어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조국통일3대헌장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해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다음과 같은 원칙과 방도들도 뚜렷이 명시하시였다. -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온 민족이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굳게 조국통일의 주제적력량을 든든히 마련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려는것은 우리의 원칙적립장이며 우리 당의 변함없는 로선이다.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련방제방식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이다.

평화와 통일은 민족자주문제 - 남조선진보운동단체들 《평화통일요구안》 공개 -

얼마전 남조선의 진보운동단체들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들에게 《남과 북의 공존과 존중, 언행일치》, 《남북공동선언계승실현》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힐것을 요구하는 《평화통일요구안》을 공개하였다. 기자회견에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 장, 《한국진보련대》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하여 각 단체의 대표자 130여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분별과 전쟁극복,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책무라고 하면서 오늘의 상황은 《철망의 시간》으로서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였다고 토로하였다. 특히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민족자주문제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여야당의 《대통령》선거후보들에게 《남과 북의 공존과 존중, 언행일치》, 《남북공동선언계승실현》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힐것을 요구하는 《평화통일요구안》을 공개하였다. 참가자들은 여야당의 《대통령》선거후보들이 《평화통일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받은 즉시 그들의 입장을 공개할것이며 앞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신념이 확립되지 못한 선거후보를 사퇴시키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본사기자



통일을 불러

한 애국지사의 인생행로를 더듬으며 (3)

날이 갈수록 민족적인것이 깃밟히고 도외시되고있는 남조선과는 달리 그 어디서나 민족의 참신한 기상이 나뉘어치고 민족적인것이 존중되고있으며 자기 민족과 인민의 리익이 우위에 놓여지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은 선로 매진해야 한다고, 이 길만이 진정한 민족의 출로라고 뜨겁게 호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생은 민족이 일체 단결하여 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단결한 공동투쟁전선을 형성하고 더욱 완강하게 투쟁한다면 남조선을 뒤덮은 검은 구름을 쓸어치우고 국난을 타개할것이며 민족의 속

주시며 깊은 추모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이뿐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결성 25돐을 맞는 재북평화통일추진협의회와 그 회원들에게 보내신 축하문에서 안재홍선생이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조국과 민족앞에 귀중한 공적을 남기고 애국지사로서의 훌륭한 생애를 석하게 세상을 떠난 애국적 인사를 씬으로써 안재홍선생의 이름도 함께 불러

마쳤다고 높이 평가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나라의 독립과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위업에 한생을 바친 안재홍선생은 잊지 않으시고 조국해방 45돐에 즈음하여서는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도록 해주시였다. 이렇게 절세위인들의 사랑속에 안재홍선생은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을 누리고있다. 안재홍선생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의 통일을 위해 온몸을 강그리 불태우며 후세에 남긴 당부로서 이 글을 마감한다. 《우리 조국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하되 통일문제는 반드시 조선사람자신의 힘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평화통일! 이것은 조국통일달성을 위한 확고부동한 유일의 방안이다.》 본사기자



꽃피는 민족문화와 전통

《민족의 고유한 (5감)까지도 사라져간다》

- 남조선에서 -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조선민족은 대대로 한강도에서 살아오면서 아름다운 생활양식과 풍습들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왔다.

그 가운데는 가장 크고 경사로운 명절로 되어온 설명절을 즐기는 풍습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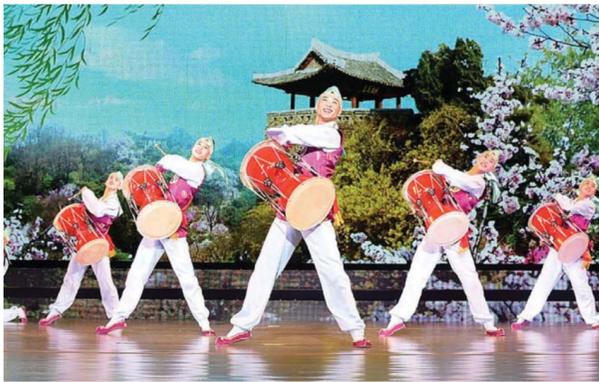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적인 생활풍습이 절절히 어려있는 민족 전통은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퇴색되지 않고 련綿히 이어지고 있다.

우수한 민족전통이 변함없이 이어지고있음을 각인해주는 여러 사진들은 보면 볼수록 민족성이 살아숨쉬는 이 땅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고있다.

홍겨운 민족놀이를 하는 학생소년들, 뜻깊은 명절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큰절을 올리는 귀여운 어린이들, 이웃들과 함께 모여앉아 웃놀이를 하는 녀성들의 모습...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민족문화전통이 훌륭히 계승발전되고있는 공화국에서 민족의 고유한 향취, 유구한 전통과 풍습은 대를 이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본사기자



남조선에서 외국문화를 마구 끌어들이는 결과 조상전래의 미풍양속과 민족문화가 사멸되어가고있다.

언어생활만 놓고보더라도 남조선에서는 우수한 우리말과 글이 버림을 받고있으며 보고 들어도 리해할수 없는 외래어, 잡탕말이 범람하고있다.

기관명칭들과 공문, 신문과 출판물들이 모두 영어를 비롯한 외래어투성이고 지어이름까지도 간략화된 영어표기로 하는것이 《유식》의 표현으로, 자랑거리로 되고있는 판이다.

뿐만아니라 민족옷, 민족음악, 민족음식 등도 그 무슨 《세계화》바람에 휘말려 우리 민족고유의 전통을 잃은 잡탕문화로 되어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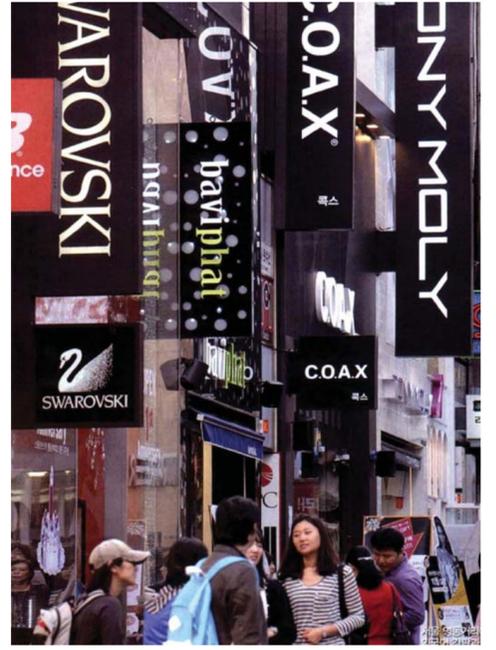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적지 않은 사람들속에서는 민족의 고유한 《5감》까지도 사멸되어가고있다고 하고있다.

민족정서가 넘치는 민족 옷이 아닌 해외망측한 서양식의 옷차림과 부드러운 우리 민족무용이 아닌 과격한 디스코춤과 같은 서양춤이 장려되고 추세로 되고있어 《시각》과 《촉각》의 마비, 우리의 민요가 아닌 외국식, 외풍의 자크, 록음악, 《클

래식음악》과 우리의 조선말이 아닌 외래어와 무슨 뜻인지도 알지도 못할 잡탕말들이 《신조어》로 보급되고있어 《청각》의 마비, 우리의 민족음식이 아닌 《카슬레》, 《푸아그라》, 《라르타르》와 같은 다른 나라의

로리들이 소개되고 대중화되고있어 《미각》의 마비, 민족의 정통성과 풍속이 사라져버린 형형색색의 풍조가 범람하여 민족의 향기를 맡아볼수 없으니 《후각》의 마비라는데것이다.

본사기자



《북은 민족의 혈맥이 용용히 높뛰는 민족성의 대화원》

민족의 문화와 전통이 활짝 꽃피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을 두고 남조선인민들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찬란한 목소리를 터치고있다.

《이남에서는 서양풍, 왜풍에 휘말려 단일민족의 혈통이 흐려지고 민족문화와 전통이 흔적없이 사라져가지만 이북은 다르다. 이북은 민족의 혈맥이 용용히 높뛰는 민족성의 대화원이다. 이북에는 분명 민족본연의 모습, 우수한 전통과 문화가 있고 고유의 멋과 향기가 있다.》

《북에서 건축물을 세우는 것만 보아도 거기에는 민족 특유의 양식, 민족의 얼이 그대로 살아숨쉬고있다. 여기가 바로 민족의 정기와 얼이 살아있고 약동하는 내 나라가 분명하다.》

《한지백으로 잇닿은 북의 현실은 위인이 있는 곳에 민족의 참모습이 있고 그 위대함이 있다는 철리를 대명제로 다시금 새기게 한다.》...

남조선의 한 역사학자는 《민족의 참모습을 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펴놓았다.

《이남에서는 민족의 넋과 미풍양속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송두리채 사라지고있는 반면에 이북에서는 민족적인 모든것이 철저히 고수되고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다.

(남이 사는 내 나라), 이것이 이남의 상징적인 대명사이다. 내것인것으로 사실상 내것이 아닌 남의 땅, 신조들이 창조한 유산들이 외세의 탐욕과 끊임없는 전쟁연습으로 무참히 약탈, 파괴되고있는 곳이 다른아닌 이남이다.

자기의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남과는 달리 이북에서는 자기의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민족적정서와 요구에 맞게 꽃피우고 품미해가고 있다. 이북에서는 조상전래의 유적, 유물 등 유산들이 끊임없이 조사발굴되고 훌륭히 복원되어 민족의 향취를 풍기

고있을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미풍양속이 개화만발하고 민족전통이 참담하게 살아숨쉬고있다.

서울의 한 언론인도 어느 한 모임에서 《북에서는 TV나 방송은 물론 각종 출판물들과 거리의 간판들 그 어디에서나 외래어를 도저히 찾아볼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여 민족의 얼이 살아숨쉬고있는 북이다.》라고 말하였다.

남조선의 한 자유기교가는 자기의 글에서 《조국은 사람들의 운명을 맡아 지켜주고 빛내주는 위대한 품이다. 하다면 우리의 진정한 조국은 과연 어디인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

《나는 그 대답을 이북에 펼쳐진 현실에서 찾는다. 이북은 민족의 넋이 살아숨쉬고 민족적존엄이 빛을 뿌리는 민족의 성지이다. 이북은 민족이 안겨줄 행복의 요람이며 민족의 운명을 영원히 맡아안고 빛내여줄 위대한 품이다.》 본사기자

공화국정부의 민족유산보호정책에 의해

설명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설명절을 맞이하는 인민들에게 더욱더 풍만한 민족적정서와 기쁨을 안겨주며 곳곳마다에 이채롭게 펼쳐진 장식들과 전통적인 민족료리봉사준비로 흥성은 금양봉사망들...

보면 볼수록 우리 민족이 제일이고 민족의 우수성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 아름답게, 더욱더 풍만하게 가꾸어가는 내 조국이 제일이라는 확신을 가슴깊이 새겨주는 이런 화폭들은 과연 어떻게 마련된것인가.

언제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문득 올해 음력설이 언제인가고 물으셨다.

일군들은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해마다 1월 1일을 설명절로 쇠다니니 음력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돌려보지 못한 그들이었던것이다.

잠시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은 음력설을 쇠는것을 전통으로 하였다고 하시면서 해방직후까지만 하여도 음력설을 크게 쇠곤 하였는데 그후 다른 나라 풍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없어진데 대하여 고사하시었다.

이어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들은 음력설을 즐겁게 쇠곤 하였다고, 온 한해동안 일하다가 음력설이 오면 지방마다 특색있는 여러가지 음식도 만들어 먹고 웃놀이를 같은 즐거운 민족놀이도 하였으며 아이들은 연피우기, 제기차기, 썰매타기와 같은 유희를 많이 하였다고 하시었다.

우리가 음력설을 쇠지 않으면 앞으로

도 후대들이 음력설이 어떤것인지 알지 못하게 될수 있다고, 해당 부문에서 앞으로 음력설을 어떻게 쇠게 하겠는가 하는것을 연구해보도록 하여야 하겠다 고 가르치시었다.

오늘 공화국에서 민족의 우수한 전통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 애국애족의 의지에 떠받들려 더욱 활짝 꽃피어나고있다.

곳곳마다에 일떠선 민족적건축형식에 현대적미감을 갖춘 건축물들과 민족유산보호정책에 의해 자기의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있는 역사유적, 유물들.

나날이 발전하는 민족음식들,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전통적인 민족명절들, 사람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심어주며 활발히 벌어지는 씨름과 바줄당기기와 같은 민족체육경기들과 장기, 윗놀이, 연피우기를 비롯한 민족오락들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조선로동당의 올바른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노래를 불러도 누구나 우리 민족의 고유한 선물에 맞추어 부르고 춤을 추어도 우리 민족의 장단에 맞추어 추고있으며 옷을 입어도 민족옷을 입고 인사를 해도 조선절을 하고있다. 또한 주제성과 민족성이 구현된 평양문화어를 적극 살려쓰고있다.

참으로 절세위인들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현명한 령도에 의해 우수한 민족문화전통과 풍습이 면면히 이어지고 날로 발전하는 공화국이아말로 민족의 얼이 살아숨쉬는 곳이다.

본사기자 김진혁

방문기

전통음식의 구수한 향취

1. 창광음식점거리 떡국집을 찾아서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설명절을 맞을 때마다 명절음식으로 떡국을 즐겨 만들어 먹었다.

흔히 무엇을 대신한다고 할 때 쓰는 《평대신 닭이다》라는 속담도 떡국을 끓일 때 꿩고기가 없으면 닭고기를 대신 쓴다는데로부터 유래되었다. 설명절이면 반드시 떡국을 먹는다는데로부터 어린이들의 나이도 떡국을 몇그릇째 먹었는가로 물어보곤 하였다고 한다.

《철세병》, 《병량》이라고도 불리우는 떡국은 이렇듯 우리 민족의 식생활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는 음식이다.

평양고려호텔근방에 위치한 창광음식점거리 떡국집은 떡국을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가사와 만난 이곳 떡국집의 서헌경적임자는 떡국, 절편, 록두지짐을 비롯한 민족음식들을 만들어 봉사하고있는데 손님들이 즐겨 찾아온다고 이야기하였다.

《떡국은 비장과 위를 보하고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의 병후회복과 몸보양에도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그의 구수한 이야기를 들으니 떡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 동했다.

이 더침집은 흰빛을 띤 버들잎모양의 가래떡들이 들여다보이는 장국물, 신선한 고기와 구워 부스르뜨린 김,

가늘게 썰어넣은 파, 참깨가 함께 어울려 상큼한 향기를 풍기는 떡국.

가정들에서도 떡국을 만들어 먹곤 하지만 아마도 떡국고유의 맛은 전문식당에서 느껴려는듯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고 한다.

《정말 맛있구만요. 우리 민족음식이 제일입니다.》 《영남이, 친철히 하나씩 먹어요. 그러다가 허까지 넘어가겠어요.》

가족끼리 오붓이 모여앉아 음식을 들며 하는 소리들이었다.

가래떡의 쫄깃쫄깃한 맛과 맑고 구수한 고기국물맛이 함께 어울린 떡국의 감미로운 맛은 그 무엇에도 비길데 없다.

음식문화가 나날이 발전하는 오늘에 와서도 사람들

이 떡국을 즐겨 먹는 이유는 그 맛이 독특하고 약리효과가 높음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단란한 분위기속에 김이 문문 나는 떡국을 갖게 드는 그 모습이 긴 세월 거레모두의 가슴속에 한쪽의 아름다운 그림자처럼 소중히 자리잡아왔기때문이다.

공화국에서는 민족의 유구성과 우수성, 고유한 생활세계가 반영되어있는 《떡국만들기》가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있다.

한술가락만 입에 넣어도 구수한 떡국은 예로부터 하나의 강토에서 한피울을 이으며 화목하게 살아가고 상하고 문명한 우리 민족의 전통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본사기자 림광훈



반드시 결산해야 할 천년속적의 죄악

1919년 1월 21일, 조선봉건국가의 대표자였던 고종황제가 일제에 의해 독살당하였다.

1905년 《을사5조약》날조를 완강히 반대하였고 강탈당한 국권을 되찾기 위해 1907년에는 헤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고종을 강제제위시킨 일제는 사실상 그를 덕수궁에 감금하다시피 하였다.

일제는 저들의 비법적이

고 강도적인 조선강점과 식민지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1919년 1월 《조선사람들이 자원적으로 나라를 병합했다》는 문서를 조작하고는 고종에게 옥새를 찍을 것을 강박하였다.

나라를 빼앗기고 황제의 자리마저 빼앗긴 고종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일제는 헤그로 밀사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면 저들의 조선강점의 비법성과 10년간의 학정 폭로될까 두려워 친일주

구들을 내세워 고종을 독살하는 극악한 범죄를 감행하였던 것이다.

일제가 저들의 범죄를 흑막 속에 덮어두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였는가 하는 것은 고종에게 옥새를 찍을 것을 가져갔던 2명의 궁녀를 암살한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더우기 일제는 고종의 독살음모가 우리 민족을 비롯한 해내외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사망원인과 날자까지

날조하였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마련이다.

1921년 중국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가 작성 발표한 《제2차 독립선언서》와 고종 황제의 서자인 의친왕의 친서에 의해 고종의 사망원인이 명백히 밝혀졌다.

거기에는 《고종이 죽은 직후에 그의 온몸에는 붉은 반점이 많이 나타나 있었다. 민영기, 홍궁섭 두 사람이 시신을 검진했을 때에도

온몸에 붉은 반점과 함께 미란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독살이라고 주장하자 일제가 그들을 잡아 가두었다.》라는 내용이 씌어 있었다.

한편 1927년에 출판된 도서 《리왕궁비사》와 일본에서 1965년에 출판된 도서 《하라 다카시일기》, 2007년에 의한 사망으로 감싸고 우리 일인의 반일감정을 무마시키려 하였다.

일제가 저지른 치명적인 반인륜적죄악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 수도, 숨길 수도 없다.

일제는 1919년 1월 23일부

《조선총독부판보》에 고종이 1월 21일 뇌출혈로 중태에 빠졌다가 1월 22일에 사망하였다고 날자를 속여서 발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장애로 되는 고종을 암암리에 독살한 저들의 범죄를 뇌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감싸고 우리 일인의 반일감정을 무마시키려 하였다.

일제가 저지른 치명적인 반인륜적죄악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 수도, 숨길 수도 없다.

김재석

법은 고양이파에서 제일 큰 맹수로서 호랑이, 갈بع이라고도 부른다.

법은 여러 아종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조선법은 크고 날쌔며 용맹스럽고 털가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이마의 《임금왕》자무늬는 《뜻깊은 의왕》인 조선법의 위풍과 당당함을 한껏 돋구어준다.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힘과 용맹을 겸비한 조선법을 령현한 동물로 사랑하고 내세웠으며 날카로운 기성과 무상의 위용을 민족정신에 구현하기 위해 힘써왔다.

법과 관련된 전설과 설화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바 《삼국유사》에 기록된 고조선건국설화는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러나 지난 세기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정신을 말살하고 반일기운을 억누르기 위해 조선사람들이 자랑하고 긍지여겼던 조선법에 대한 대대적인 사냥범죄를 감행하였다.

일제는 이른바 《해수구제》를 명목으로 1915~1916년 사이에만도 수백마리의 조선법과 100여마리의 표범, 수백마리의 곰 등을 사냥했다.

일제총독부는 1917년에는 《조선호랑이사냥행사》라는 것을 벌려놓고 사냥단의 이름도 《정호군》으로 달았으며 《정호군》이라는 것까지 지어부르며 조선법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였다.

법은 고양이파에서 제일 큰 맹수로서 호랑이, 갈بع이라고도 부른다. 법은 여러 아종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조선법은 크고 날쌔며 용맹스럽고 털가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이마의 《임금왕》자무늬는 《뜻깊은 의왕》인 조선법의 위풍과 당당함을 한껏 돋구어준다.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힘과 용맹을 겸비한 조선법을 령현한 동물로 사랑하고 내세웠으며 날카로운 기성과 무상의 위용을 민족정신에 구현하기 위해 힘써왔다. 법과 관련된 전설과 설화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바 《삼국유사》에 기록된 고조선건국설화는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러나 지난 세기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정신을 말살하고 반일기운을 억누르기 위해 조선사람들이 자랑하고 긍지여겼던 조선법에 대한 대대적인 사냥범죄를 감행하였다. 일제는 이른바 《해수구제》를 명목으로 1915~1916년 사이에만도 수백마리의 조선법과 100여마리의 표범, 수백마리의 곰 등을 사냥했다. 일제총독부는 1917년에는 《조선호랑이사냥행사》라는 것을 벌려놓고 사냥단의 이름도 《정호군》으로 달았으며 《정호군》이라는 것까지 지어부르며 조선법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였다.

임진왜란시기 조선침략의 선봉에 섰던 가토 가요마사를 내세우며 올리는 조선호랑이를 모두 사냥하고 레닌에는 로씨야의 곰을 사냥하겠다는 《정호군》의 가사내용과 도표의 데이코쿠호텔에서 열린 호랑이고기시식회라는데 현직대신을 비롯한 200여명의 고관대작들이 총출동했다는 사실 등은 일제가 조선법사냥을 어떤 목적으로 벌려놓았는가를 잘 알 수 있게 한다.

일제의 무차별적인 조선법사냥으로 1919~1924년사이의 6년간에도 호랑이와 표범 수백마리가 매죽음을 당하였으며 이중에는 대단히 큰 호랑이도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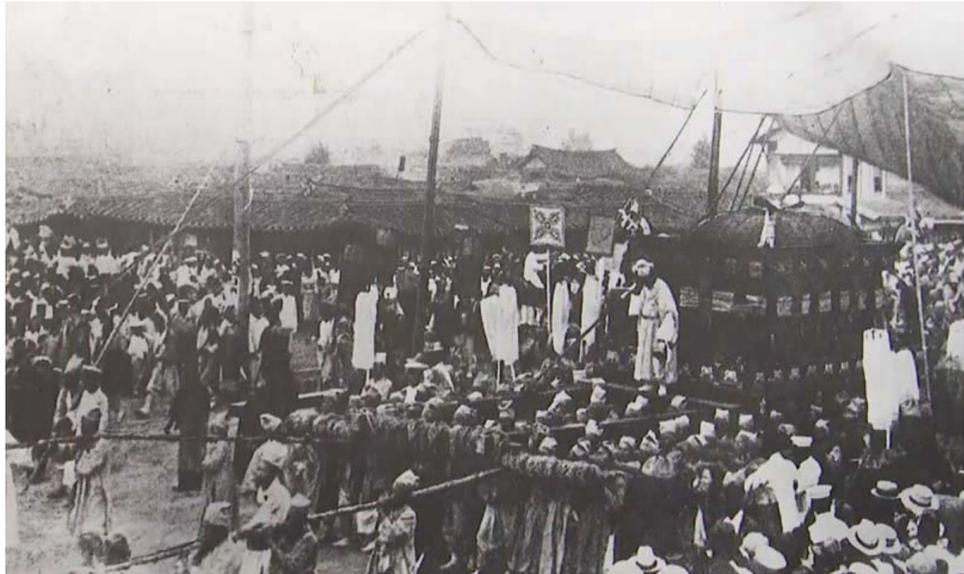
결국 일제에 의해 우리 나라에서 호랑이는 거의 사멸되다시피 되었다.

참으로 조선을 강점하였던 일본침략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그 악랄성과 야수성에 있어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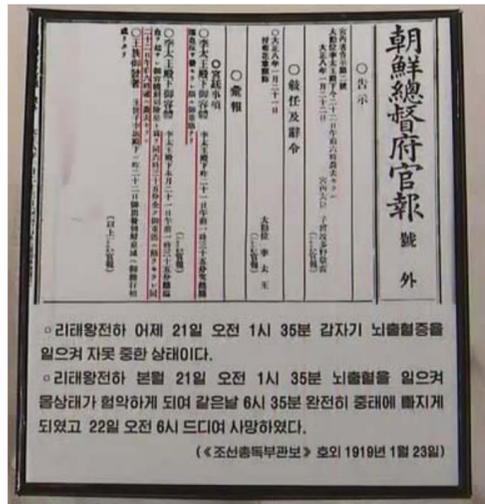
력사에 류례없는 악랄한 식민지통치로 천추만대에 씻을수 없는 특대형범죄들을 감행하고도 사회와 배상을커녕 간교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조선에 대한 지배와 간섭, 제침야욕을 추구하는 일본의 책동은 과거죄악을 천백배로 결산하려는 우리 민족의 분노의 불길에 더욱 세차게 타고르게 하고있다.

력사학자 김선규

조선법사냥행사에 대한 일제의 감행



3. 1 인민봉기의 발화점으로 된 고종황제의 장례식



고종황제의 사망사실을 외곡한 자료

위기모면을 위한 생색내기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이 년초부터 《경제파탄정부》의 오명을 벗어보려고 모지모지를 쓰고있는 당국의 처사를 두고 위기모면을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있다.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당국이 최근 2년간 경제분야에서 거둔 《성과》에 대하여 자화자찬하는 한편 경제악화로 인한 민심의 불만을 누갓이기 위해 부동산문제해결과 소비품 가격인하, 일자리마련 등 경제조치들과 정책들을 탐발하고있지만 올해 경제전망은 여전히 암울하다고 분석하고있다.

그러면서 경제회복을 위한 당국의 재정확대정책은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기여 소비가 감소되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평하고있다.

한편 남조

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남조선경제의 불확실성에 불안을 느낀 외국투자자들이 대대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주식이격 등이 폭락하면 금융체계붕괴라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고 세계적인 원자재가격 폭등, 수입규제강화로 수출환경이 보다 악화될 가능성도 높아 반도체, 석유화학, 전기제품을 비롯한 주요품종수출 역시 크게 감소되고 2022년 전체 수출 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2~3%나 떨어질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당국이 저들의 《경제성과》만을 광고하면서 《위기극복정부》가 되겠다고 하지만 《경제파탄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김광혁



《집은 사람의 운명을 갈랐다》

《(아영은 기사에 라렬된 30대의 사례들이 무척 낯설었다. 끌어모으면 아파트를 살수 있는 평흔은 대체 어떤 평흔일까. 나는 평흔마저도 실속이 없네. 웃음이 나왔는데 솔직히 웃기지는 않았다.》(《서영동이이야기》)

(수도 없이 이사를 다니며 얻은 결론은 한가지, 집이 없으면 희망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이들에게 희망이란 집과 같은 뜻이었다.)(《원미동사람들》)

1987년의 원미동과 2022년의 서영동, 그리고 1978년의 행복동까지 작가들은 가상의 동네에서 집때문에 울고웃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썼다. 집은 사람의 운명을 갈랐다. 동네가 재개발돼 《쫓겨난 사람들》이 되기도, 《내 집》을 마련해 계층이동의 사

다리에 올라가기도 했다. 40여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도 부동산을 둘러싼 욕망, 이를 부추기는 사회분위기는 그대로다. 소설안에서나, 밖에서나.

도시민민이 모여살아 가마니촌, 무허가판자촌으로 불리던 서울 동작구 사당동은 1980년대후반 도시재개발사업이후 대규모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중산층의 공간》으로 재편됐다. 사람들은 비닐하우스, 임대아파트, 단독주택 등으로 흩어졌다. 1980년대 사당동에 거주했던 13명을 찾아 30~40년간 이주경로와 주거형태 등을 실층 인터뷰했다. 도시, 주택소유주와 세입자의 계층이동이 뚜렷하게 달랐다. 개발적인 개인사이에서도 불균등하게 배분됐다. 재개발당시 《내 집마련》이라는 줄

은 문을 쉽게 통과한이들은 중산층이 된 반면 사당동에서 쫓겨나다시피 떠난 세입자들은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렸다.

한중사회에서 집은 단순히 주거공간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위치를 가늠하는 표상으로 받아들이진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권을 보장하기보다는 주택생산자인 기업과 소비자인 개인의 재원을 끌어들이 아파트를 마구 지었다.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집이 계속 자산격차를 증폭하고 불평등을 심화하는 비법은 여기에 숨어있다. 1980년대중반이후 줄곧

들중 한 가구는 《내 집》에 살고있지 않다.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내 집》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공간을 뜻한다. 대신을 앞두고도 《내 집마련》에 초점을 맞춘 공약만 남긴다.》(《한겨레21》에서 전재)



정치시정배들의 《밥그릇싸움》

남조선의 《뉴스1》을 비롯한 언론들이 《국민의힘》내부에서 당권을 위한 치열한 암투가 지속되고있는데 대하여 보도하고있다.

그에 의하면 《백의종군》을 표명했던 홍준표가 얼마전 윤석열을 만난 자리에서 그를 돕는 대신 앞으로 있게 될 보철선거와 지방자치선거들에서 자신이 추천한 인물을 검토해

볼것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비공개로 진행되었다는 그 회담내용이 즉시 외부에 알려지고 《국민의힘》내부에서 《누가 봐도 이진 거대로 생각할수밖에 없다.》, 《구태정치이다.》라는 비난이 비발치자 홍준표는 《최악의 대선구노》에 나만 진퇴양난에 빠진 듯이라고. 《윤석열(윤석열의 핵심관계자들)에게 실제로

당해보니 참 융통한 사람이다.》, 《차라리 출당시켜달라. 같길은 면대 남은 저물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보수층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홍준표를 정치적으로 죽이려 공작한다.》, 《홍준표를 정치적으로 죽이려 공작한다.》, 《홍준표를 정치적으로 죽이려 공작한다.》고 주장하며 윤석열패거리들에게 반기를

들고있다고 한다. 이러한 속에 《홍준표와 유승민도 모두 꺾을 했다.》는 김건희의 특목특이 공개되자 윤석열패거리들은 때를 만나자 《홍의힘이 빨간색 속옷까지 입고 다녔다. 미신이 의존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가.》 등으로 홍준표를 로골적으로 야유조소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은

《국민의힘》내부의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놓고 《하나의 팀》을 구성하였던 《국민의힘》의 정치선언이 폄하될이 되었다고 평하고있다.

남조선 각계층도 《정쟁밖에 모르는 정치권》, 《《국민의힘》 집안싸움에 신물이 나 지경이다.》, 《권력다툼에 혈안이 되어 《밥그릇싸움》이나 벌리고있으니 이는 실망을 넘어 심판받을 일이다.》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들을 비난하고있다. 본사기자

미신에 빠져 허우적이는 얼간이

남조선정치인들이 선거기간 미신행위를 하는것은 고질적인 봉건적관습의 표현이다.

반대파들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남조선에서는 유럽에서 수백년전에 없어진 원시적인 종교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이것은 지난해 10월 윤석열이 손바닥에 《王》자를 써 가지고 《국민의힘》의 《대통령》선거후보선출을 위한 한외신들의 조소와 비난이다.

당시 남조선 각계에서도 《박근혜를지지하러 청와대에 서 갔을 했다.》는 최순실을 보에게 주는 청와대 뭉치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전씨와 가까운 사람의 증언도 나왔다. ... 선거대책본부내에서는 전씨가 윤후보의 매제지와 일 정, 인사에 관여하는 등 선 대본부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리도 나온다.》 남조선언론들은 윤석열이

최근에도 남조선언론들은 윤석열과 일가족속들이 한갓 무속인(점을 치는 무당이나 점쟁이)의 비과학적인 조언에 따라 사생활은 물론 공적인 업무를 진행한 사실들을 련이어 폭로하고있다.

남조선언론 《세계일보》는 윤석열의 선거대책본부산하에 점쟁이가 《고분》으로 활동하고있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전씨는 정계와 재계에서 《진검법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전씨가 윤후보의 검찰총장시절부터 대권도전을 꾀심하도록 도했다는 주장과 함께 자신은 《구사》(봉건시기 왕의 자문역할을 하는 고승에게 주는 청와대 뭉치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전씨와 가까운 사람의 증언도 나왔다. ... 선거대책본부내에서는 전씨가 윤후보의 매제지와 일 정, 인사에 관여하는 등 선 대본부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리도 나온다.》 남조선언론들은 윤석열이

검사생활은 물론 《대통령》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점쟁이들에게 의존하는 비과학적행위를 일삼게 된다는 그의 처가족속들의 영향이 큰 작용을 하였기때문이라고 분석하고있다.

그에 의하면 윤석열의 장모는 오래전부터 미신에 빠져 여러명의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며 점을 치고 관상을 보는것을 평강히 좋아하였으며 그의 영향으로 윤석열의 처 김건희 역시 중학교때부터 미신에 의존하여 생활해 왔다고 한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지난 《대통령》선거 때 정치인들이 점쟁이들과 얽힌 일화들이 많았지만 윤석열처럼 점쟁이에게 완전히 휘둘린 전례는 거의나 없다고 하면서 위협천만길 의사결정을 점쟁이에게 맡긴 윤석열에게 《우리들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수 없다.》며 강하게 비난하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신뢰할만한 인물이 없다》

신에 빠진 후보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수 없다고 집중공격을 하고있다고 한다.

더우기 얼마전 윤석열이 과거 검사노릇을 하면서 한 건실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먹고 부정부패행위를 눈감아주었다는 의혹이 폭로되는데 대해 《후보직사퇴》도 불어대고있다.

이에 맞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선거후보의 형수 육설림을자료도 방송에 내

보내야 한다고 떠들고있다고 한다.

한편 《이베일리》를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은 여야당사이에 《나치스공방》까지 진행되는데 대해 보도하고있다.

그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차별, 혐오》 등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국민의힘》 대표를 《청년깡벌스》라고 비난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국민의힘》 대표는 《내가 깡벌스이면 《국

민의회》은 나치스이고 우리 후보는 히틀러인가.》고 반박했다고 한다.

이러한 속에 실속이 없는 선심성공작들을 탐발하며 권력쟁탈에 혈안이 되어 돌아가는 각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들과 그들의 배후에 있는 정치권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환멸과 혐오감도 더욱 높아가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정치권과 《대통령》선거후보들이 민생악화문제해결은 뒤전에 밀어놓고 《탈모중치로지연》, 《녀성가족부제지》, 《사병월급인상》과 같은것만 광고하며 선거경쟁에 열을 올리는데 대해 《검폐기공약》, 《세금과 나라빚종축을 불러올 장미빛공약》, 《구시대적인 평가공약》이라고 비난하고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오는 3월에 있게 되는 선거를 《력대공의 진흙탕 난투극》이라고 야유조소하며 《신뢰할만한 인물이 없다.》고 등을 돌려대고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